

2026. 5. 6.(수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6년 5월 6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
(설계공모 주관)

문화본부 문화시설과
(사업 주관)

미래공간담당관

김지호

02-2133-7640

공공건축1팀장

육근형

02-2133-7617

문화시설과장

윤선희

02-2133-4210

문화시설2팀장

이영기

02-2133-4228

사진 없음 ☐ 사진 있음 ☒ 쪽수: 5쪽

관련 누리집
(메뉴)

<http://project.seoul.go.kr>

도서관·체육·돌봄을 한곳에, 서남권 '열린 복합공간' 밑그림 완성

- 서서울문화플라자 건립 설계공모 당선작 (주)디림건축사사무소 선정
- 도서관생활체육서울형 키즈카페 등 시민 삶의 방식을 담아내는 가변형 공간 설계
- 서남권 돌봄·문화 수요 해결... 592억 원 투입해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

□ 서울시는 강서구 내발산동에 들어설 서남권의 새로운 문화 중심지인 '서서울문화플라자' 설계공모 결과, (주)디림건축사사무소가 최종 당선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. 이번 공모는 혁신적인 디자인 발굴뿐만 아니라 디지털 심사 및 결과를 전격 공개해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극대화하며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.

<서남권 시민의 오랜 기다림, '열린 복합시설'로 결실>

□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 권역별 특화도서관 건립 계획 발표 이후, 2023년 시립도서관 단독 건물에서 생활체육시설과 서울형 키즈카페가 결합된 '복합공공시설'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며 서남권 시민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는 데 주력해 왔다.

- 특히 시는 보다 활용도 높은 건축 계획을 위해 부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건축물 허용 용도를 확대하는 등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, '23년 서서울문화플라자 조성 기본계획(안) 수립에 따른 '24년 1월 행정안전부(LIMAC) 타당성 조사 및 '24년 8월 시 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공공건축관리자(PA) 선정과 다섯 차례에 걸친 설계공모운영위원회 회의, 총괄건축가 자문을 통해 본 설계공모를 시행하게 되었다.

<시민 삶의 방식을 닮은 도서관·체육·돌봄 '복합문화공간'>

- 서서울문화플라자는 도서관(6,000㎡), 생활체육시설(4,500㎡), 서울형 키즈카페(500㎡)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. 이번 당선작은 기존 공공건축의 전형적인 틀을 깨고 시설 간의 담장을 허물어 외부 공공공간과 내부 공유공간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.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자신의 집 거실처럼 편안하게 머물며 일상적인 접근성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의 '열린 거점'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.
- 특히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, 시간대나 이용자, 행사 규모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변형 설계와 운영 시나리오를 도입했다. 도서관과 체육, 돌봄 기능이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장되거나 변모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, 서남권 시민들에게 고정된 시설 이상의 역동적인 문화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.

<신뢰받는 절차로 확보한 시민 친화적 공간>

-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'디지털 심사장'을 활용해 신원 비공개(블라인드) 발표와 심사위원 투표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.

○ 총 71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1차 서면 심사(2026. 4. 22.)와 2차 발표 심사(2026. 4. 29.) 전 과정을 유튜브 채널(www.youtube.com/@projectseoul2023)로 생중계하여 누구나 절차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으로 서남권의 미래를 책임질 디자인을 선정했다.

□ 또한 전문위원회의 두 차례 기술 검토와 소명서 확인 절차를 통해 법령 준수는 물론 실제 건립 시 안정성을 꼼꼼히 확보했다.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 복합 프로그램의 운영 시나리오와 시설별 외부 공간과의 접속 관계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, 디자인의 심미성뿐만 아니라 실제 건립 시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혁신안을 최종 선정했다.

<592억 원 투입, 일상에 즐거움을 더할 서남원 생활 활력소>

□ 예정 공사비 592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가 본격화됨에 따라,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했던 서남권의 생활 지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. 시는 당선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시설 간 동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, 지역사회 어디서나 발길이 닿는 ‘완전 개방형 공간’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.

○ 향후 시는 관계 절차에 따라 설계계약을 체결하고, 기본·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돌입함으로써, 서남권 시민들이 하루빨리 새로운 공간에서 풍요로운 일상을 향유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“이번에 선정된 서서울문화플라자가 서남권 시민들의 일상을 풍요로운 문화로 채워주는 활기찬 소통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”며, “공공건축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시민의 삶의

질을 높이는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,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혁신적인 공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”고 밝혔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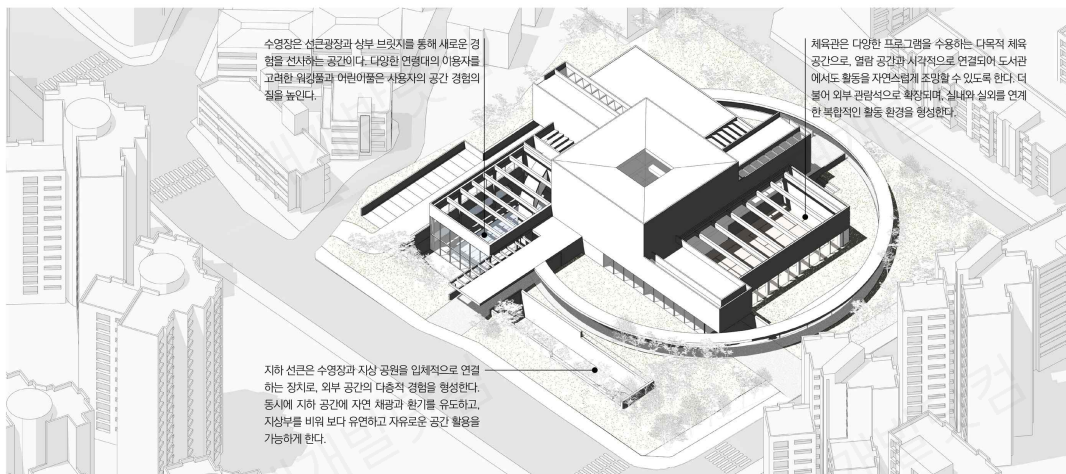
조감도



내부 뷰



수영장 뷰



개념도